

David Guetta (Feat. Nicki Minaj, Bebe Rexha, Afrojack) - Hey Mama (2014)와 샘플링 원곡 Alan Lomax - Rosie (1947) 비교 분석
- 곡의 분위기 및 Lyrics 중심으로 -

문유민*, 조태선**
한국K-POP고등학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hehe7603@hanmail.net
**e-mail:entheos@chungwoon.ac.kr

David Guetta (Feat. Nicki Minaj, Bebe Rexha, Afrojack) - Hey Mama (2014) and Original Sample Alan Lomax - Rosie (1947) Comparative Analysis
- Based on the mood of the song and Lyrics -

You-Min Moon*, Tae-Seon Cho**
*The High School of Korea K-POP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현재 대중음악은 힙합과 EDM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DJ씬에서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와 아프로잭(Afrojack), 힙합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니키 미나즈(Nicki Minaj)와 비비 렉사(Bebe Lexha)의 협업 곡인 Hey Mama가 샘플링으로 차용한 원곡 Rosie와의 곡 분위기 및 가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1947년도의 곡이 샘플링 기법을 통해 2014년 현대 음악으로 재탄생 되면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본다.

1. 서 론

샘플링(Sampling) 기법은 현대 음악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하나이다. 샘플링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뻔 한 곡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 부분적으로나마 빛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로 디디(Diddy)와 페이스 에반스(Faith Evans)가 함께한 I'll be missing you(1997)는 더 폴리스(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1983)를 샘플링으로 사용했고 비욘세(Beyonce)의 Crazy in love(2003)는 샤이라이츠(The Chi-Lites)의 Are you my woman(1970)을 사용했으며 핏불(Pitbull)과 크리스티나 아길레라(Christina Aguilera)가 함께한 Feel this moment(2012)는 아하(A-HA)의 Take on

me(1985)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모두 상업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중음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인 EDM과 힙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와 니키미나즈(Nicki Minaj) 등이 협업한 Hey Mama를 원곡인 알렌 로막스(Alan Lomax)의 Rosie와 비교 분석해 보며 원곡과 샘플링으로 재탄생 된 곡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원곡과 샘플링으로 재해석 된 곡의 분위기와 가사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곡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표현들을 살펴보고 곡의 구성과 사운드가 어떤식으로 변화 하였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2-1 윌콕 Rosie 배경 및 분석

알란 로맥스(Alan Lomax) - Rosie(1947)는 아프리카 아메리칸(Afro-American) 노동요로 1930년대 초 알란 로맥스가 외부 세계에 닿지 않은 노래를 찾고 있던 도중 남부 교도소를 찾게 되었을 때 만들어진 곡으로 파치만 팜(Parchman Farm)으로 알려진 미시시피 주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작업시에 부르던 콜앤 리스폰스(Call & Response) 형식의 노동요이다. 곡에 등장하는 리듬은 도끼와 같은 작업용 도구들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소리이며 발표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Rosie”는 특정한 인물이 아닌 가혹한 구타와 잔인한 폭력에서 벗어나 석방되고 싶은 수감자들의 자유와 갈망, 감옥 밖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 희망 등을 상징적 의미의 “Rosie”라는 여인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영적인 의미로의 신을 표현 하며 오직 신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Rosie의 품에서 행복하고 평온한 날들을 꿈꾸는 것 처럼 신의 품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과 이번 생은 아니더라도 다음 생엔 자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Fig 1] Rosie Sheet Music

선창과 후창을 주고 받는 형식의 곡으로 모든 마디의 1박에 타악기의 리듬이 먼저 등장한 후 노래가 시작된다. 노래의 시작과 끝까지 멜로디와 리듬엔 변화가 거의 없고 가사 또한 같은 구절을 반복하거나 비슷한 가사가 노래가 끝날때까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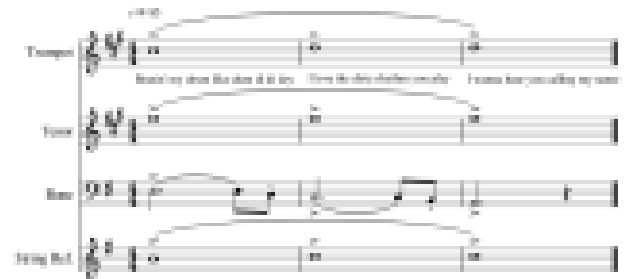
2-2 Hey Mama 분석

David Guetta (Feat. Nicki Minaj, Bebe Rexha & Afrojack) - Hey Mama는 2014년에 발매 된 앨범으로 인트로(Intro)와 인털루드(Interlude), 아웃트로(Outro) 모두 16마디 구조를 가지고 있고 “Rosie”의 첫 8마디 가사를 샘플링 하여 만들었다.



[Fig 2] Hey Mama Intro Sheet Music

“Rosie”의 작업용 도구를 이용한 타악기 리듬은 경쾌한 클랩(Clap)으로 8마디 1, 2, 3, 4 박자마다 채워졌고 후창(Response) 부분인 노동자들의 노래 소리 또한 힘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인트로 5마디부터 라이저(Riser) FX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8마디 3박에 리듬 브레이크를 주어 벌스(Verse)의 도입부를 돋보이게 하였다. 벌스는 12마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드럼과 808 베이스, 니키미나즈(Nicki Minaj)의 랩핑만으로 채워져있다. 4마디 부터 인트로에 사용했던 라이저 FX를 다시 등장 시킴으로써 분위기의 변화를 주었고 5마디부터 다시 박자마다 클랩과 신스(Synth)를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흥겹고 신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Fig 3] Hey Mama Chorus Brass Sheet Music

코러스(Chorus)는 총 16마디 구조로써 첫 8마디는 브라스(Brass)와 비비 렉사(Bebe Rexha)의 보컬로만 채워졌으며 9마디에 인트로에서부터 등장하던 클랩과 롱 라이저(Long Riser)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악기로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인트루드(Interlude) 구간은 인트로를 반복해서 사용하였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1, 3, 5, 7마디 1박에 브라스 악기들로 어택감을 줌으로써 인트로와 차별성을 두었다. Hey Mama의 가사를 살펴보면 Hey Mama 이전에 Rosie를 샘플링으로 사용한 곡인 니나 시몬(Nina Simon)의 클래식 앨범 Pastel Blues(1965)의 오프닝 트랙 "Be My Husband"처럼 자신이 "Rosie"라는 가정하에 답가 형식의 가사를 띄고 있다. 그러나 Rosie에서 내포하고 있는 출소 후의 자유와 갈망이나 다음 생에 대한 희망을 담은 내용 보다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가사의 내용만을 차용하여 Be my woman girl I'll be your man에 대한 대답 형식의 내용을 띄고 있고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표현한 가사들이 많다. 따라서 Hey Mama를 통해 Rosie라는 곡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원래의 곡이 가지고 있는 흑인들의 애환이나 고통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단순한 구애의 의미를 가진 가사와 반복적 멜로디 패턴을 가지고 있는 후렴구 정도로 받아들이기 쉽다.

3. 결 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던 Rosie가 Hey Mama를 통해 샘플링 되어 부분적으로나마 다시금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상업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Hey Mama에서 원곡인 Rosie가 지닌 흑인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고통을 담아낸 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단순히 즐기기 위한 노래로 변질된 모습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Rosie라는 곡이 가진 음악적 유산은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의 Strange Fruit과 같이 시대와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Hey mama와 Rosie 이외에도 샘플링으로 재해석 된 곡이 원곡과의 의미와 본질이 달라져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곡들이 종종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디디(Diddy)와 페이스 에반스(Faith Evans)의 I'll be missing you(1997)와 더 폴리스(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1983)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디디는 괴한들에게 살해당한 노토리어스 B.I.G.(The Notorious B.I.G.)를 그리워 하며 만든 곡이지만 원곡인 Every breath you take의 가사 내용은 헤어진 옛 연인과의 이별의 충격으로 스토커가 되어 떠나간 연인을 지켜보겠다는 내용으로 누군가

를 그리워 한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 원곡과 샘플링된 곡의 의미가 같을 수 있으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원곡과 샘플링으로 재생산되는 음악이 가진 의미나 분위기 등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샘플링으로 인해 원곡과의 괴리감이나 이질감을 느끼는 대중들도 적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의 음악가들이 자성하고 고찰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 [1] WIKIPEDIA - Hey Mama
- [2] WIKIPEDIA - David Guetta Discography
- [3] Worlds of Music: An Introduction to the Music of the World's Peoples(2009)